

출처: <https://qiita.com/skitoy4321/items/3bb822eda052a76788c9>

2019/11 무렵, github에 [dotnet/runtime](#) 라는 저장소가 탄생했다.

이것은 [지금까지 분리된 dotnet 런타임과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통합하는 목적](#)으로 만들어진 것이다.

구성 파일은 대부분 기존의 저장소에서 가져온 것이지만, 여기에 어떤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 있는지 대충 정리한다.

디렉토리 구조

대략 다음과 같다.

docs

-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런타임에 관한 문서를 정리한 디렉토리
- 소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
- 특히 [docs/design/coreclr/botr](#) 는 dotnet이 동작하는 구조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려 있기 때문에, 읽을 거리로 재미있다
- 통합 이전 저장소에 있던 md 파일 등은 대부분 이 아래로

eng

- [dotnet/arcade](#) 파일
- 빌드, 패키징, 통합을 위한 공통 툴
- dotnet/arcade 저장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통 볼 필요는 없다

src

-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 등
- 또한 여기에서 나뉘어져 있지만 뒤에 이야기 한다
- 이행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분기는 비어 있지만, tag를 참조하여 이전의 상태를 참조 할 수 있다

tools-local

- dotnet/runtime 저장소 한정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 군

이외에 [저장소 구성에 대한 이슈](#)를 보면, [aspnet/Extensions](#) 와 [mono](#)의 일부도 가져올 것 같지만, 현재(2019/12)는 확인할 수 없었다.

src 아래의 구조

src/coreclr

- 주로 [dotnet/coreclr](#) 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
- JIT, GC 플랫폼 별로 구현이 필요한 부분 등 런타임 부분과 네이티브 성분이 많다면 이 디렉토리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
- src/libraries 에 구현이 없을 경우, 대개 [src/coreclr/src/System.Private.CoreLib](#) 아래에 있는 것이 많다

src/libraries

- 주로 [dotnet/corefx](#) 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
- 클래스 라이브러리 중 매니저로 끝나는 것과 **bait and switch**에 필요한 참조 용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포함된다
- **netstandard** 시에 참조 되는 라이브러리도 대개 여기에 있다

src/installer

- 주로 [core-setup](#) 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
- **dotnet** 명령과 **publish** 시 생성되는 실행 파일의 기반이 되는 **corehost** 소스와 일부 포장과 관련된 부분의 소스가 여기에 포함 되어 있다

끝으로

다가올 **.NET 5**를 향해 저장소 통합을 한 것이지만, 저장소가 하나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기술 등을 정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. 특히 **docs** 아래가 하나로 정리된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.

또한 지금까지 클래스 라이브러리 수준의 수정은 여러 리포지토리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(특히 **corefx**과 **coreclr**) 이 통합으로 하나의 **PR**에 모아져서 추적도 쉬워진다.

저장소 통합 관련 이슈를 보면 아직 변경 사항이 있을 것(**aspnet/AspNetCore**이 **dotnet/aspnetcore** 든가, **dotnet/sdk** 라든지) 같지만 가장 큰 **dotnet/runtime**의 통합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.

<https://github.com/dotnet/announcements/issues/119>

<https://github.com/dotnet/announcements/issues/127>

<https://github.com/dotnet/announcements/issues/133>